

42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사무엘상 1, 3, 7장

하나님께서서는 간절히 아들을 구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누워 있는데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다.”

다시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엘은 그때마다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제사장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알고 어떻게 대답할지 말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시 누웠을 때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사무엘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빠짐없이 엘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무엘의 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10)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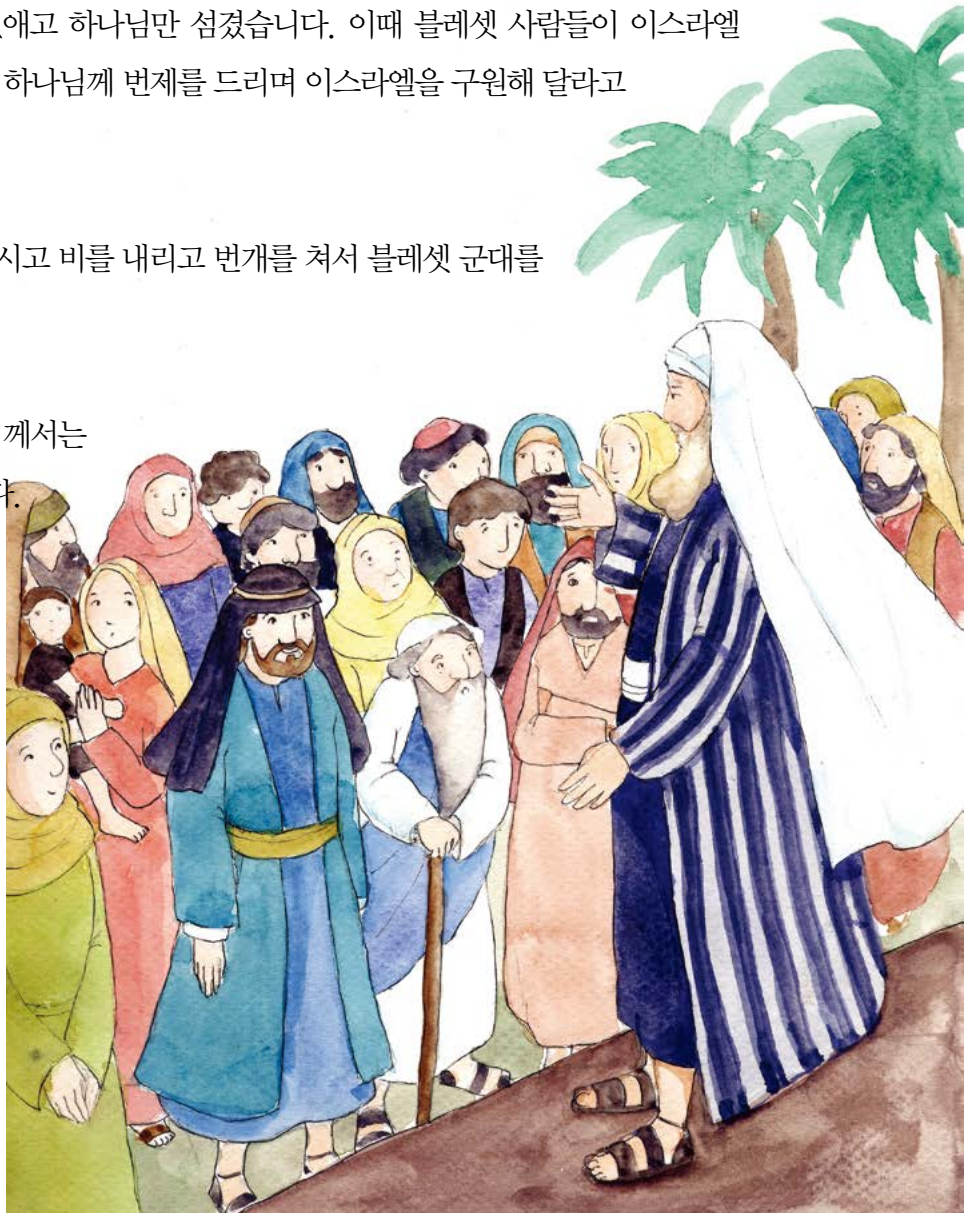
세월이 흘러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말했습
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모든 우상을 없애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
엘로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고 번개를 쳐서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공부

사무엘을 부르심

1. 하나님께서 네 번째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어떻게 대답했나요?

2. 백성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

- ① 사무엘이 깜짝 놀랄 기적을 일으켜서
- ②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 ③ 사무엘이 말을 잘하고 잘 생겨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상 3:19)

사무엘의 말을 백성이 들음

1. 사무엘은 백성을 모아 무슨 말을 하였나요? (사무엘상 7:3)

2.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였나요? (사무엘상 7:4)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7)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1.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아래 그림을 보고 대답해 보세요.



2. 로마서 12장 또는 에베소서 6장에서 한 곳을 골라 읽어보세요. 여러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가장 하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

.....

.....

.....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알아볼까요

흡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 흡니와 비느하스는 불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고기를 삶은 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게 정해 준 고기의 부분이 있지만, 그들은 고리로 찢어서 걸려 나오는 고기를 아무거나 가졌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가져야 하지만,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먼저 고기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엘리의 아들 흡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경고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님
난

선생님
난